



순결·진실·용기

大稜

1

제162호 2013년 11월 29일(금)

발행인 : 강창희 (44회)
편집인 : 김순식 (51회)
편집·제작 : 총동창회 사무국
발행처 :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 대전고 동창회관 2층
TEL(042)257-0005 FAX(042)257-0518
홈페이지 : www.daego.kr
E-mail : obdk@daego.kr

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報

함께하는 대고! 2013년 마무리도 “함께”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 12월 20일(금) 오후 6시 유성 리베라호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대능인의 밤 ... 12월 9일(월) 오후 6시 서울 조선폰텔



△ 2012년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모습

2013년을 마감하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와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9일과 20일에 열린다.

재경동창회의 ‘2013년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는 12월 9일(월) 저녁 6시 소공동에 위치한 조선폰텔 그랜드룸에서 개최된다. 당일회비는 5만원이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결산 및 예산보고 등이 이뤄지며 올해 모교와 동창회를 빛낸 재경 동문에 대한 ‘올해의 대능인’ 시상과 공로패 증정을 하게 된다. 만찬이 끝난 후에는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2부 순서인 대능인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평창올림픽 주제를 부르고 여수 EXPO 홍보대사를 맡았던 가수 강민이 출연하며 ‘서울 Solist Ensemble(금관 10중주단)’과 함께하는 재경대전고 동문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는 12월 20일(금) 저녁 6시 유

성 리베라호텔 2층 다이내스티 홀에서 개최된다.

기념식, 만찬 등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올해의 대능인’을 시상하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동문들에게 공로패를 증정한다. 기념식에 이은 만찬 시간에는 특별한 축하공연 없이 참석한 동문들이 기수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며 동문의 정을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동문들의 좌석을 배정하기로 했으니 행사에 참석할 동문들은 기별 회장이나 총무에게 미리 참석 신청을 하기 바란다. 참석회비는 1만원이다.

2013년도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와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모교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전 동문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인복(53회) 동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초대 의장 취임

이인복(53회,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이사회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세계 120여개국이 참여하는 선거분야 최초의 국제기구로 지난 10월 1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이 창설을 주도한 이 기구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지식·경험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무처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섰다.

A-WEB은 창립총회에서 총회와 집행이사회 등을 주재할 임기 2년의 의장에 이인복 중앙선관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의장 수락연설에서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A-WEB의 성공적 역할 수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기구가 국제사회의 선거문화 선진화하고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집(55회) 동문

합동참모본부 차장 취임

김현집(55회, 육군중장) 동문이 10월 25일 단행된 군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차장은 육사 36기로 임관해 2사단 대대장, 육군대학 전술교관, 1군단 작전과장, 6군단 감찰참모, 3사단 연대장, 3군사 작전과장, 합참 전비검열실 차장, 3군 작전처장, 28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5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장군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며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완벽한 업무처리를 하는 동시에 소신 있는 성격으로 상관과 부하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군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의 大稜人’ 3명 선정

총동창회 대능인상위원회(위원장 44회 윤성렬)는 지난 11월 19일 저녁 6시 대전 둔산동에 있는 중식당 미스터왕에서 과학기술과 행정 2개 부문에서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 관련기사 2면



▲ 대능인상위원회는 열띤 토의를 거쳐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올해의 대능인>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이기우(49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행정부문에서 여행구(56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김덕중(57회) 국제청장 등 모두 3명이다. 이기우, 여행구 동문에 대한 시상은 12월 20일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시에 할 예정이며, 김덕중 동문은 12월 9일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 시 강창희 총동창회장이 시상한다.

이번 수상자 선정은 재경동창회, 기별동창회, 지회 등 각계의 후보추천을 받아 대능인상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한 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올해의 대능인상>은 지난 1999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지난 해까지 총 82명의 동문에게 시상했다.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 **문 성 식** (58회)
대전지방법원소속 회장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2 봉화빌딩 6~7층
TEL : 042-472-8282 FAX : 042-472-8285



과학기술 이기우(49회)

이기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재직하며 열동력연구실장, 폐열이용연구센터장, 고효율에너지연구부장, 에너지효율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후 지난 11월 7일 원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에너지효율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내 국가에너지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2011년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에너지효율기술분야에서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행정 여형구(56회)

여형구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통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1회 출신으로 교통부 항공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건설교통부 재정기획관·홍보관리관, 미국 연

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 파견근무 등을 거쳐 공항, 예산, 홍보, 도시개발, 종합교통 등 건설교통부 내 주요 업무를 두루 익혔다. 이후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관, 기획조정실장, 교

‘2013년 大高를 빛낸 3人’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 동문 소개

올해의 대능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3명의 동문들은 평소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올해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대능인의 명예를 드높여 2013년을 빛낸 ‘올해의 대능인’으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20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될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재경은 12월 9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개최될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공적 사항을 지면으로 만나본다.

통정책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항공을 맡는 제2차관에 취임했다.

여 동문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확장 등 대형 국책사업과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건설 등 민자·외자유치 사업 등 각종 정책현안을 성공적으로 마칠 정도로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부처가 생긴 이래 건축직으로는 최초로 실장에 오르고 또 최초로 국토부 내 3개 실장을 역임할 정도로 국토부 현안에 정통하면서 적극적·합리적이며 깔끔한 일처리로 국토부 인력의 신망이 두텁다.

여 차관은 항공과 도로 등 국가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1994년 우수공무원 근정포장, 2000년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행정 김덕중(57회)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천안세무서장, 국세청 정보개발담당관·전산조사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3월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국세청 내부 개혁이 한창이던 2010년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을 주도해 현재의 국세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징세법무국장 재직 시에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악성 고액 체납자 체납정리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김 청장은 모나지 않은 성격에 인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조직 내에서 ‘덕장’으로 꼽히며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조정관 재직 시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무리 없이 추진, 조직 변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총동창회회장단·기별회장단 연석회의



총동창회·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가 11월 12일 저녁 6시30분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외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 윤 수석부회장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남산에서 열린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에 대전에서 전세버스 12대에 460명이 참석하도록 노력한 기별회장, 총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으며, 오는 12월 20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2013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문들을 독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기금 모금운동인 일백백운동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정채상태에 놓여 있는 일백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별동창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동창회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만찬을 즐겼다.

교모, 사진 등 史料 기증 잇따라



동문들의 사료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

이현상(52회) 동문의 어머니가 40년간 간직한 교모(사진 좌측)를 기증했고, 박종명(40회) 前 수의과학검역원장은 1958년 천안중 후배들의 모교 입학에 기념하기 위해 김종구(38회, 前 법무부장관) 선배가 자장면을 사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설명이 있는 사진 한 점(사진 우측)을 기증했다. 또 지난 7월에는 현재웅(79회) 동문이 졸업기념 버클을 기증한 바 있다.

대능지를 통해 사료 모집 광고를 낸 후 현재까지 기증된 자료는 일제시대 학교정문 사진이 수록된 우편엽서 1점, 졸업앨범 2점, 교과서 2점, 사진 1점, 교모 1점, 버클 1점, 사진 10점 등이다.

총동창회는 사료를 기증한 동문들의 뜻을 기려 한 점 한 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귀중한 자료를 흔쾌히 내어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동문들의 사료기증을 부탁한다.

이인구(31회) 계룡건설 명예회장 모교 지원



이인구(31회) 계룡건설산업 명예회장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년생 뱃나무 20주를 기증하고 소운동장의 물빠짐공사 장비를 지원해주는 등 총 1,000여만 원 상당을 모교에 지원했다. (사진)

모교는 지난해 말 교사 전면 개축과 함께 조성한 소운동장 주변의 환경조성을 고민하던 중 이인구 회장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수능시험일 이후인 11월 8일 공사를 완료했다.

이 회장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회사로 방문한 김현규(53회) 모교교장에게 “이번 지원으로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모교와 후배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규 교장은 “선배님의 깊은 뜻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선배님들의 전통을 잘 이어 가도록 후배 교육에 더욱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58, 59, 60회 동창회 대능지 발행비용 지원

이번 162호 대능지 광고는 58회 동창회(회장 금기반, 재경회장 노명섭)와 59회 동창회(회장 남상인, 재경회장 김신철) 그리고 60회 동창회(회장 김용성, 재경회장 권순목)에서 맡아 대능지 발행 및 발송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광고료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수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별동창회에서 광고를 맡는 전통을 이어가는데 협조해 주신 58, 59, 60회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능지 광고는 지난 142호부터 2~3개 기수가 연합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고 있습니다.

다음 163호 광고는 61, 62, 63회가 맡을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적을 이루는 꿈,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부의장 초청 특강

모교는 지난 11월 4일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부의장을 초청해 ‘기적을 이루는 꿈,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라는 주제로 1·2학년 250여명에게 특강을 실시했다.



신 부의장은 “꿈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집을 가출하여 미군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다 치과의사였던 미국인 양아버지를 만나 17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간 후 워싱턴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0여년간 교단에서 동양 역사를 가르친 신 부의장은 1992년 워싱턴주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지금은 미주 한인 정치인 중 최다선인 5선의 의원이며 최초의 동양인 상원의원이다.

신 부의장은 특강을 마치며 “워싱턴에는 대전고를 졸업한 분들이 많다. 미국에 돌아가 대전고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하고 “그 분들도 인생에 많은 시련과 좌절이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도 꿈을 잃지 않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노력하면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학년도 입학설명회

중3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가 지난 10월 17일 저녁 7시 모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평소 입학 관련 문의가 많았던 대로 500여명의 중3 학부모들이 참석해 모교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모교 홍보 동영상 상영 및 입학 안내 설명이 끝난 후 정광문 3학년 진학담당 교사가 2017학년도 대입 전망과 관련하여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3년 김태영 군, 교통사고 위험 취객 구해

3학년 김태영 군이 만취한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구했다.

김 군은 11월 16일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오후 12시 30분 경 모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만취해 도로 위에 쓰러져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지닌 취객을 발견, 혼자 힘으로 가까스로 이 취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 뒤 경찰서에 신고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3년 이충희 군, '29초 영화제' 특별상

3학년 이충희 군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식재단이 후원한 제3회 '29초 영화제'에서 청소년부 특별상을 수상했다. '나의 한국음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출품작 691편 가운데 10개 작품이 수상했는데, 이 군은 어머니의 온정이 담긴 된장찌개로 부모님의 소중함을 표현한 '눈물소금'으로 특별상을 차지했다.

이충희 군은 지난 8월 '박카스 29초 영화제'에서 청소년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학생자치위, 욕설않기 다짐 선포식

학생자치위원회가 10월 4일 교장실에서 '욕설 안기 다짐' 선포식을 열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의 취지는 언어폭력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고양 및 학생들의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28일까지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이 운영되는데 학생자치위원회는 특히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을 「욕설 없는 주간」으로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했다.

학부모 및 교직원 또한 가정통신문 및 온라인 교육으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모농구클럽' 동아리, 교육감기 준우승

농구동아리 '한모농구클럽'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월평중학교와 한밭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대전광역시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 농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참가하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이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하는 한모농구클럽은 대전지역 27개 고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도안고, 동아마이스터고, 지족고, 전민고를 차례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구봉고에게 35대 39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동아리 '유심' 학교폭력 UCC 공모전 금상

동아리 '유심' (3학년 이빈, 임재정, 오세진, 김한민)이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시교육청, 한화이글스가 공동주최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UCC 공모전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작품으로 금상인 대전지방경찰청장상을 수상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학교폭력에 정확한 정의가 없어지고 피해자·가해자의 구분도 점차 모호해져 가는 요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깨진 유리조각이 파고드는 것 같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학교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제13기 한모생활관 퇴사식 거행

2013학년도 제13기 한모생활관 퇴사식이 11월 8일 오전 10시 학사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층 시청각실에서 거행됐다.

김현규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3년간 고생이 많았다"며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퇴사생들에게 "앞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모생활관 생활을 잊지 말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모생활관은 학생들의 면학 학풍을 선도하여 학력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모교의 명문 전통을 이어갈 인재 양성을 하는 기숙사로서 올해는 48명의 학사생을 배출했다.



1년 박주한 군, 장애인정보화대회 은상

1학년 박주한 군이 2013 전국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문서작성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박 군은 지난 9월 대전지역 예선에서 1등을 차지해 이번 본선에 진출했는데 이 대회는 지적·지체성 장애 학생들만의 겨루기가 아닌 장애영역 및 학생부, 일반부 통합이란 점에서 박 군의 수상은 놀랄만하다. 박 군은 이번 대회 은상 수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 군의 어머니는 "단순히 여가생활 등을 생각하여 어릴 때부터 놀기 삼아 배우게 한 컴퓨터 활동으로 상도 받게 되고, 이 능력을 기초 삼아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뻐했다.



동아리 '유심', 미디어페스티벌 대상

동아리 '유심' (3학년 이충희, 임재정, 2학년 이수한, 이승준, 김성근, 윤여일)이 작품 '익명재판'으로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KBS미디어,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에서 주관한 전국 최대 규모의 '2013 클린콘텐츠 UCC 공모전'에서 대전문화진흥원장상을 수상했고, 광명시립 나들청소년문화의 집이 주관하고 광명시의회, 광명시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가 후원한 '제1회 미디어페스티벌 청소년 UCC 공모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했다.

'익명재판'은 인터넷 상에 만연하는 악플, 마구잡이식 비난, 인터넷 왕따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라고 생각하여 익명성을 가면으로 형상화해 익명성의 폐해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제4차 임원 및 기별·직능·지역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재경동창회 임원 및 기별·직능·지역·동호인 회장단 연석회의가 10월 15일(화) 충무로에 있는 대림정 3층 태극실에서 신현일(48회) 회장 외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를 재경동창회에서 주최하는 관계로 행사진행에 대한 지원과 기별 참가 독려, 참가인원 확정 요청과 찬조 및 협찬을 당부하였다.

추계강연회 및 제5차 임원·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재경동창회 추계강연회 및 임원·회장단(기별·직능·지역·동호인 모임) 연석회의가 11월 13일(수) 저녁 6시30분 삼성동 공향터미널 3층에 있는 서울컨벤션 갤럭시 룸에서 31회부터 82회까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추계강연회는 원래 재경동창회 하반기 행사로 추계 조찬강연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여러 행사로 인해 날짜 잡기가 어려워 임원회의와 겸해서 만찬행사로 거행하게 된 것이다.

연사로 나선 윤창현(58회, 서울시립대 교수) 금융연구원장은 2014년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전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동문은 강연이 끝난 후 감사비를 12월 정기총회 찬조금으로 기탁하였고, 지난 11월 9일 대전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재경62회 동창회는 재경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하여 참석한 동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연회가 끝난 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집행부는 12월 9일 개최되는 ‘2013년 정기총회 및 재경대능인의 밤’ 행사에 대해 보고하고 원활한 행사를 위해 많은 인원 참석독려, 찬조 및 협찬을 요청하였다.

또, ‘올해의 대능인상’ 대상자로 김덕중(57회) 국제청장을 동기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능인상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우수 총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총무상’은 올해 각종 행사에서 최다참가기상을 수상하고 동창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경재 58회 총무에게 수여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로상은 집행임원단의 추천에 의해 회원명부 발간 등에 공헌이 있는 이철재(51회) 오능회장과 동창회 조직 활성화와 등반대회 장소 선정에 많은 공헌을 한 김영대(53회) 실행위원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테니스로 다지는 동문사랑, 45명 참가

제32회 추계 재경동문 친선 테니스대회

재경동창회 테니스회(회장 49회 박희영, 총무 54회 송석홍)가 동문 간 친선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주최한 제32회 추계 재경동문 친선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테니스장에서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사진은 제31회 대회 모습

대회결과 단체전 OB조에서는 백팀이 우승, 청팀이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YB조에서는 55회가 우승, 54회가 준우승, 연합팀이 3위를 했다. 개인전 OB조에서는 목이균(48회)·고길수(51회)팀이 우승을, 좌주양(45회)·김정기(51회)팀이 준우승을 했고, YB조에서 우승은 강호병(55회)·김두일(55회)팀에게 돌아갔으며 김종만(55회)·이규갑(55회)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재경동창회에서 50만원, 박희영(49회) 테니스회장이 30만원을 찬조했으며 이동호(38회), 강현모(45회), 목이균(48회), 박용섭(50회), 이견복(51회), 이해규(53회), 정영재(54회) 동문이 각각 10만원씩 찬조했다. 김선진(55회) 동문은 테니스 코트를 협찬했다.

서울 남산에 올려퍼진 ‘천하대고’ 함성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 성료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 한옥마을 광장에 집결한 동문과 동문가족들은 기념품과 생수를 받고 기념촬영을 한 후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의 “천하대고!” 구호와 함께 한옥마을을 출발하여 2시간여를 단풍이 들고 있는 서울 한복판 남산에서 대능인의 기상을 펼쳤다.

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순환도로를 따라 남산을 한 바퀴 돈 대능가족들은 낮 12시 경 동국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만해광장으로 이동해 기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성훈(70회) 동문의 사회로 게임과 퀴즈, 명랑운동회 등을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안겨 주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신현일 재경회장의 환영사와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이 축하를 한 후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등반대회를 마쳤다.

이번 등반대회에는 전국에서 1150여명이 참가했는데 특히, 대전에서 전세버스 12대를 타고 460명이 참가해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대전과 서울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대능가족등반대회의 취지에 맞게 동문화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대능가족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 남산에서 열린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에는 전국에서 1,150명의 동문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등반대회 기별분담금 납부 및 협찬 현황(재경)

2013. 11. 26. 현재

*기별분담금

금 액	납부 기수
30만원	37~47회 (67~70회 미납)
40만원	48~51회, 53~62회, 65회, 66회 (52, 63, 64회 미납)

*찬조금

(괄호 안은 기수)

금 액	납부 기수
360만원	조동인(56) 수건 제작비용 협찬
200만원	신현일(48) 재경동창회장
100만원	총동창회, 김현규(53) 모교교장, 오능회, 육능회 김종린(39), 강형빈(46), 김대현(60)
50만원	장영철(45), 오세빈(47), 김경수(58)
30만원	이규성(37), 김종구(38), 심대평(38), 김각영(41), 박철근(50), 양호승(53), 김성남(55), 조철연(58), 이운룡(59)
10만원	이동호(38), 임성수(39), 김구(40), 천명운(40), 김용표(48), 엄기현(49), 남궁욱(50), 이학노(56), 김봉현(60), 최중철(60)

*협찬품

(단위 : 만원)

성 명	기수	협찬품 내역	상당액	비 고
서용원	47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4매	120	2매는 대능인의 밤 사용
목이균	48	양파즙 10박스	40	
류제민	48	커피선물세트, 녹차 등	60	
박경식	50	조루시술권 2매	180	1매는 대능인의 밤 사용
조석준	51	맥주	50	
정을석	52	바닥깔판 40개	40	
김용구	54	라이프코칭 상담권 3매	40	
이종철	54	산양산삼	90	
김창영	54	도서 노벨상 수상작 10권	19	
박근태	55	소주 20박스	60	
조용병	55	골프용품, 넥타이 등	50	
길호철	56	홍삼엑기스	40	
박태호	56	화장품 4세트	60	
권태관	56	야채다지기	15	
김용덕	56	보온물병 등 5점	20	
신현중	58	흑삼	200	2박스는 대전 차량에 공급
김진철	58	화장품	30	
맹영기	61	영화 '공범' 예매권 20매	18	
박승만	63	홍삼세트 30개	270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를 다녀와서

서울 남산을 출렁인 대능가족의 물결

10월 27일 일요일. 그날은 우리 사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가을을 꾸미고 있는 날이었다. 산도 들도 하늘도 청량한 날씨까지도 이러한 가을의 축복 속에 대전에서 45명, 서울에서 43명의 우리 친구들과 가족이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쾌적한 여정을 시작하였다.

일출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 모교 교정에 집결한 우리 동기 및 가족을 포함한 대전 동문 460여명은 12대의 전세버스에 올라 오전 7시 10분 서울을 향해 출발하였다. 버스의 긴 행렬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직선으로 혹은 꿈틀대며 움직였다. 모두 아침식사를 거르고 나올 것을 예측한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김밥, 영양떡, 굴, 흑삼추출액에 피로회복제까지 나눠줘 호화로운 요기를 하고 시장기를 달래 준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꼈다. 단풍으로 풍년으로 그려지고 채색된 산야를 내다보며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 풍요로움을 가슴 가득히 수확하였다.

버스행렬이 천안을 지나 입장휴게소에 빨리 들어가 10분을 쉬는 동안 버스에서 내린 우리 동문 선배배들이 화장실로 몰려 버스 정차시간 내내 화장실 포화상태가 지속되었다. 배뇨 기능이 떨어진 우리를 포함한 노인동문들이 이 지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용변을 봐 몸이 한결 가벼워지자 버스들이 힘을 냈다. 가을걷이가 끝나 하얗게 나뉘는 벼집 사료가 끝없이 널려있는 가을 들판을 뚫고 기분 좋은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다.

오전 9시 30분 예정대로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앞에 도착, 모두들 차에서 내려 바로 위에 있는 남산 한옥마을 광장으로 걸어들었다. 여기에서 대전, 서울 동문들이 기수별로 합류, 만남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렇게 만난 천 명이 넘는 우리 동문들은 재경동창회 사무처장의 행사 진행 계획을 듣고 남산 탐방 등산을 시작하였다. 대능가족의 물결은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흐르며 굽이져 높이를 더했다. 아치교를 건넌다가 성벽 앞에서 멈춰서서기도 하고 돌계단을 올라 안중근 의사의 동상 앞에서는 경건한 자세로 흐름을 멈추기도 하였다.

우리동문들은 남산의 정상 팔각정에 올라 남산타워의 기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방으로 조감되는 서울을 가슴에 품었다. 여기는 상징적으로 백두산 병사봉보다 더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은 그 극점에 서서 서울, 아니 대한민국을 안아 보는 것이었다. 동문선후배 여러 기수가 남산 팔각정에서 인증촬영을 하였다. 사진기의 성능이 아직 미흡하여 그때의 호연지기가 영상화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었다. 서울의 조감도를 가슴에 그린 우리는 물결처럼 하산하여 낮 12시 10분 동국대학교에 도착하였다.

아침 일찍 버스에서 호화로운 먹을거리로 채웠던 배속은 포만감이 도망치고 시장기가 장악하고 있어 바로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다. 이 식사시간이 120여 분이나 지속되었다.



남산 순환로를 가득 메운
1,150명의 대능가족 행렬



연습한 대로만 돌아다오.
벳살 다이어트엔 훌라후프가 최고!



몸에 달기도 전에 파당!
림보게임 정말 어려워요



댄스는 장기자랑의 백미.
막춤은 스트레스 해소 넘버원

식사 시작 10~20분 내에 식사를 한 극소수의 동문을 제외 한 대다수 동문들은 허기의 괴로움이 얼마나 자심한지를 뱃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

식사인원이 천 명도 더 되는데다 배식구가 두 군데 밖에 없어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나마 막판 식사를 한 동문들은 오랜 기다림 끝의 꿀맛 식사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후 2시에 식사가 끝나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48회 신현일 재경동창회장은 준비가 미흡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행사 참여를 환영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란다는 환영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강창희 총동창회장이 행사를 준비한 재경동창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 여러분 모두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모교와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간절한 인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53회 김현규 모교교장도 모교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하며 오늘 행사를 준비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하였다.

곧이어 최다참가기수상을 발표, 월등한 다수 참가로 우리가 1등상을 수상(일금 30만원)하였다. 이후부터는 즐거운 여흥시간. 자녀, 손주들의 림보, 춤 등 장기자랑, 동문들의 OX퀴즈, 老少동문의 8인9각 이어달리기 등을 즐긴 후 경품을 추첨하였다. 우리 동기는 단 한사람도 당첨되지 못해 아마도 최다참가기수상을 수상했다고 아예 우리를 당첨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였다. 불운한 경품추첨으로 우리는 김이 새는 듯하였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가슴이 뿌듯하였다. 소중한 가치가 가슴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라. 경품추첨을 끝으로 <2013 대능가족 한마음등반대회> 그 대단원의 막도 내려졌다. 예정보다 늦은 오후 4시 30분, 우리는 대전으로 떠나는 버스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우리를 환송하는 서울 친구들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귀향길에 천안 망향휴게소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내려오는 차중에서 마누라를 아끼는 몇몇 동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군수군 모의한 뒤, 인현만 회장으로 하여금 “대전에 도착하면 구 시민회관 뒤 신촌설령탕집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라고 발표하게 하여 오늘 모셨던 어부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듣게 하였다.

저녁 7시 10분 식당에 도착하여 설령탕 국물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나서 각자 집으로 행복한 귀가를 하였다.

이번 등반대회는 우리 동기 친구들 가족이 선후배 동문 가족과 더불어 남산 일원의 풍광을 즐기며 행복한 추억의 지층을 한 층 더 쌓은 가을축제였다.

장흥기(42회)

2013년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 ◆ 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 ~ 21:00
- ◆ 장소 :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소공동 소재)
- ◆ 참석, 협찬품, 찬조금 문의
 - 재경동창회 사무국 : 02-2278-8868
- ◆ 당일회비 : 50,000원 또는 티켓
- ◆ 사회
 - 1부 김진원(53회, KBS 앵커)
 - 2부 조영구(방송인)

- ◆ 행사일정
 - 식전행사(리셉션 및 영접)
 - 1부 정기총회(결산 및 예산보고)
 - 만찬(Set Menu)
 - 2부 축하행사 및 경품추첨
- ◆ 출연
 - 초대가수 : 강민(평창올림픽 주제가, 여수EXPO 홍보대사)
 - 서울 Solist Ensemble(금관 10중주단), 동문 및 동문가족

72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감동과 웃음, 가족애로 빛났다

큰절 퍼포먼스 개그콘서트 공연

제72회(회장 조명휘, 재경회장 양우영) 졸업 20주년 기념행사가 근래 보기 드문 대성황 속에 성료됐다.

지난 11월 16일 모교강당에서 열린 행사엔 72회 동기와 가족, 은사님, 선배님 등 350여명이 강당을 빈틈 없이 메우는 장관을 연출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졸업 20주년’을 모토로 치러진 이번 행사엔 특히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행사와 달리 시종일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모교 소운동장에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명랑운동회와 보물찾기에선 동기들과 아내, 자녀들이 한데 어우러져 맘을 흘리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동안 야외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쌀쌀했던 날씨마저 이날만큼은 봄 날씨처럼 화사해 72회의 졸업 20주년을 반겼다.

오후 4시부터 모교강당에서 진행된 본 행사는 반별 대표가 은사님들을 한 분씩 대동해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동기와 가족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입장한 은사님들과 총동창회 내빈들은 우레와 같은 성원에 감개무량한 듯 얼굴에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조명휘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순식(51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대독한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김현규(53회) 모교교장의 축사에 이어 1반 담임을 맡았던 이문현(42회) 선생님께서는 은사님 대표로 말씀을 시작했다. 이문현 선생님은 애초 중요한 개인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웠으나 제자들이 꼭 뵙고 싶다는 청이 연거푸 이어지자 막판에 참석결정을 내려 더 큰 감동을 건넸다.

은사님께 드리는 큰절 ‘감동’

이날 가장 감동을 선사한 장면은 은사님과 제자들의 무한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큰절 퍼포먼스.

양우영재경회장의 은사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에 이어 은사님들을 모두 연단에 모시고 반별 대표들이 선물을 증정했다. 굳이 연단 아래에 있는 동기들 모두가 큰 절을 올리는 기습 몽클한 장면이 펼쳐졌다. 제자들은 물론 은사님, 선배님, 가족들 모두 크게 감동을 받는 순간이었다.

나경연 동기는 눈시울을 적시며 “은사님들께 큰 절을

올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감격해했다.

모교와 총동창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한 후 교가를 불렀다. 20년 만에 모교강당에서 부르는 교가에 72회 동기 모두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반별로 은사님과 동기, 가족들이 모두 나와 기념촬영을 하면서 본행사가 끝났다. 은사님들은 제자들의 자녀를 자신의 손자손녀인 듯 무릎에 앉힌 채 함박웃음을 그치지 못하는 훈훈한 장면이 이어졌다. 기념촬영과 함께 최고급 뷔페로 차려진 식사자리에선 미처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은사님들과 동기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정을 나눴다.



▲ 감동 가득했던 큰절 퍼포먼스.
“은사님, 20년 만에 큰절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KBS개그콘서트팀 공연에 동문가족 웃음만발

이날 행사의 최고 백미인 KBS개그콘서트팀의 초청공연이 이어지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웃음과 함성으로 뒤덮였다. 무대 앞쪽에는 어린 자녀들이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에 녹아들었다.

이번 72회 행사가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로 치러진데는 개콘팀 초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예인들이 20여명 대거 출연하기 때문에 거액의 공연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었지만 동기들의 열화와 같은 모금으로 행사비용을 거뜬히 감당해냈다.

눈을 땀 줄 모르고 개콘 공연을 관람한 오상용 동기의

딸 채은(9·초등2)이는 “제가 좋아하는 개그콘서트를 아빠, 엄마랑 봐서 너무너무 좋아요”라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1시간여 동안 개그콘서트 공연에 배꼽을 빼놓은 우리네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풍성한 경품공세에 눈과 귀가 번쩍 뜨였다.

선배와 동기들이 이날 경품으로 내놓은 물건은 금액으로 자그만치 2000여만 원에 달했다. 경품 진행시간만 약 30분에 달할 정도로 선물이 많아 참석한 가족의 절반 정도가 최소한 한 품목은 가져가는 경품이 넘쳐나는 행사였다.

영예의 대상인 40인치 스마트 LED-TV는 이상진(8반) 친구에게 돌아갔다.

가족들 대전고 나온 아빠·남편 ‘최고’

이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는데 한몫을 했던 아내들의 칭찬도 이어졌다. 보통 남편의 모교행사 참여를 주저하기 십상인데 막상 와보니 남편이 달라 보인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번 행사의 부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경수 동기의 아내 김병주씨는 “남편이 졸업20주년 행사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여러 달 동안 밤늦게 귀가하고 술을 마셔서 조금 서운했는데 오늘 와보니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흐뭇해했다.

실제 지난여름부터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가면서 집행부 대부분은 본인의 생업까지 등한시하면서 행사준비에 매달렸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72회 동기와 동기회를 위한 마음으로 똘친 지난 몇 달이었다.

추진위원장을 맡아 행사의 전체 윤곽을 그렸던 이인복 친구는 “힘들다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행사준비를 했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힘을 합쳐준 동기들과 한동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명휘 회장은 “어느 기수보다도 훌륭하게 졸업 20주년 행사를 치러낸 동기들의 저력과 동기애가 자랑스럽다”면서 “최고의 동기회를 꾸려 모교 발전과 동기들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휘(72회 회장)

52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열려

제52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일 오후 5시 유성호텔에서 은사님, 모교교장, 총동창회 집행부 등 내빈과 동기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



유하룡 동기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박준태 회장과 최경순 재경회장의 기념사와 은사님의 회고사, 김현규(53회) 모교교장의 축사, 윤성렬(44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대신 읽은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의 축사를 들은 후 은사님께 선물을 증정했으며 모교와 총동창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만찬 후 여흥시간에는 1970년대 민중음악 통기타가수 이태원이 출연하여 ‘술개’, ‘고니’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진 장기자랑에서는 끼 있는 동기들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62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우정과 전통의 힘은 거대했습니다

제62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11월 9일(토) 저녁6시 대전 동구 가양동 선사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습니다. (사진) 동기와 가족, 은사님과 모교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총동창회 집행부 및 선배님 등 내빈을 포함하여 총 300여명의 참여 속에서 ‘함께 한 30년, 함께 할 30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추억을 다지고, 앞으로의 동행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1억원이 넘는 모금액과 2천만원을 웃도는 경품을 통해 나름대로 풍성한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동기들과 선배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모금과정에서는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반대표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기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목표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졸업 20주년 행사 후 매달 1만원씩을 적립하여 이번엔 100만원을 선뜻 내놓았던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품 마련을 위해 다품 소량 협찬을 원칙으로 정하고 여러 동기 및 선배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꺼이 응해주신 점 또한 잊지 못할 기억입니다. 특히 모교교장선생님께서는 대형 TV 협찬을, 총동창회에서는 격려금을 통해 행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결국 이번 행사를 통해 새삼스레 확인한 것은 우정과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불과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정의 향기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고, 명문 대전고의 전통을 이어받는 일 또한 회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향후 대전고총동창회의 일원으로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또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창수(62회 회장)

세월따라 변모하는 커피역사 이야기

다방 → 음악다방 → 커피전문점 → 에스프레소...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 네, 에스프레소 2잔 주세요.”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앵? 왜 이리 조금이야?”

3~4년 전만 해도 커피전문점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요즘은 40~50대 남자들도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이용할 정도로 커피문화가 대중화 됐지만 일반인이 커피를 주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 처음 다방이라는 곳을 가본 것은 1960년대 말인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된다. 어른들은 커피를 드시고 나는 고소한 땅콩차를 먹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커피가 어떤 방식으로 만든 커피인지는 모르겠지만 냄비에 커피가루를 넣고 끓여서 여과천에 걸러주는 냄비커피나 불 위에 직접 올려서 진공의 원리로 조제하는 대형 사이폰, 추출용량이 많은 15인용 드립식, 유리주전자 안에서 계속 우려내는 퍼플레이터가 아니었나 싶다.

고등학교 졸업 때인 1970년대 말, 새로운 다방형태인 음악다방, 사이폰 커피 전문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수정, 경동, 국일, 늘봄, 서림 등이 음악다방들이다. 음악다방과 같이 생겨나기 시작한 원두커피 전문점의 확산 속도는 요즘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확산 속도 이상이였다. 1980년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지하에 생긴 ‘가베’는 당시 커피 서빙은 여자가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훈남들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커피 서빙을 하여 많은 여학생들이 찾곤 하였다. 가베와 함께 영상, 은모래, 하얀 섬, 검은 뭇배, 커피가 있는 풍경, 조금 빠르게 등 수많은 커피전문점이 성업을 이루었다. 대전, 청주, 대구에만 있던 독특한 커피문화였는데 199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당시 서울은 ‘바쁘다 바빠’ 시대로 주전자에 물만 펄펄 끓여 ‘핵심’을 타주는 방식이었지만 대전, 충남 등 지방에서는 원두커피를 뽑아서 제공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원두커피 전문점과 일반다방, 이렇게 두 종류의 커피 판매 형태가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됐고 손님들은 주문한 커피가 나오면 프림이나 설탕을 넣기만 하면 되는, 비교적 편하고 간단한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1997년 불어 닥친 IMF의 영향과 때맞춰 보급되기 시작한 냉온수기에 의해 일회용 커피믹스 시대가 열리면서 커피전문점과 다방의 존재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커피 춘추전국시대, 커피 과도기를 맞게 되었다.

1999년 서울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커피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보고 왔던 뉴욕계 문화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것이었다.

이후 에스프레소가 무엇인지 주문하는 사람도 주문받는 사람도 잘 모르고 주고 받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날의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커피는 700년경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어 예멘을 거쳐 16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데 1900년경부터 100여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발전시켜 온 것이 에스프레소 문화이다. 그것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미국의 공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탈리아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로 나누고 있다.

에스프레소(espresso)는 ‘빠르다’라는 뜻인 영어 express의 이탈리아어로 7g의 커피를 93℃의 물과 9기압의 압력으로 30초 동안 30ml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커피도 문화다. 그래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주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한다.

- ♣ 에스프레소 : 커피의 심장 (설탕을 넣어 마시면 정말 맛있다)
 - ♣ 아메리카노 : 에스프레소 + 뜨거운 물
 - ♣ 카페 라떼 : 에스프레소 + 뜨거운 우유
 - ♣ 카푸치노 : 에스프레소 + 뜨거운 우유 + 풍부한 거품
 - ♣ 바닐라 라떼 : 에스프레소 + 뜨거운 우유 + 바닐라향 시럽
 - ♣ 카페 모카 : 에스프레소 + 초콜렛 소스 + 뜨거운 우유 + 휘핑크림 + 초콜렛 장식
 - ♣ 카라멜 마끼아토 : 에스프레소 + 향시럽 + 뜨거운 우유 + 풍부한 거품 + 카라멜 장식
 - ♣ 아이스 메누는 찬물, 찬 우유와 얼음을 넣은 것
- ※ ‘프림’은 ‘동서식품’의 상품명이고 고유어가 된 경우로 원래는 크림Cream이 맞다.

대전둔산바리스타학원 원장박대용(59회)

우연히 마주친 격투기, 꼭 성공할 겁니다

존경하는 대전고등학교 선후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91회 한이문입니다. 저는 로드 FC 종합격투기 선수입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소질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격투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야간자율학습 대신 격투기체육관에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체육관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갔지만 친구들은 모두 얼마 되지 않아 운동을 포기하고 저만 꾸준히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처음에는 못 믿어하시던 선생님도 저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첫 시합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시합에 한 번 나가 볼래?”라고 흘린 말에 제가 “예”라고 하고 시합에 나가서 1라운드 암바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시합까지 모두 KO승으로 이겼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첫 경기를 치루고 나서야 제가 격투기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연거푸 4번을 KO로 이기니까 저를 응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이 되고 저는 어느 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무체육관에서 케이블방송 XTM의 리얼리티 쇼인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을 찍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시합에 나갈 때처럼 관장님이 저에게 “너 ‘주먹이 운다’에 한번 나가 볼래?”라고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셔서 저는 무작정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충무체육관에 들어서자 저는 처음 보는 카메라에 유명 격투기 선수 등 신기한 광경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관장님은 저에게 연습하는 것처럼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글러브와 마우스피스와 끼고 기존 선수들과 ‘지옥의 3분’ 시합을 해 통쾌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올라온 4명의 선수들을 모두 이겨 충청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서울에 가 전국 4개 지역 챔피언이 모여 경기를 했는데 저는 두 번을 싸워 한번은 이기고 한번은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간 선수가 저와 시합하다 주먹이 골절돼 더 이상 시합을 할 수가 없어 제가 대신 결승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드 FC라는 국내 최고의 격투기 단체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시합 당일 무대까지 걸어가며 “꼭 이기자”라고 몇 번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링에 오르고 케이지의 문이 닫히고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파이트!” 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고 상대방과 뒤엉키다 보니 어느새 3라운드도 지나갔습니다. 제가 많이 맞아 실질적으로는 졌지만 상대선수가 4번이나 제 남심을 가격하는 (로우 블로우) 반칙을 하여 감점을 많이 받는 바람에 결국 제가 판정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로드 FC라는 격투기 단체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투기 팬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번 시합을 하면 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1년에 3번에서 4번 경기를 합니다. 솔직히 시합 중 당한 부상을 치료하거나 운동기구를 사기에도 턱 없이 부족할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의 주 수입원은 협찬입니다. 시합이 방송에 나가면 선수의 경기 복에 붙인 협찬사 마크를 통해 협찬사를 홍보하고 홍보비를 받는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협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유명선수를 빼고는 따로 돈벌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힘들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제가 이 운동을 포기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후배님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후배님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어떤 소질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기회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왔다가도 도망가는 법입니다. 제가 만약 체육관에서 운동을 게을리 했다면 과연 ‘주먹이 운다’ 프로그램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노력하고 있으면 기회는 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도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요.

ROAD FC 종합격투기선수 한이문(91회)



▲ ‘주먹이 운다’ 우승으로 국내 최고의 격투기단체 ROAD FC 진출권을 따낸 한이문 동문



▲ 모교 교표 문양을 그린 카푸치노, 역사의 흐름을 타고 커피문화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60회, 홍성 용봉산으로 떠난 가을 나들이



60회 동창회(회장 김용성)는 11월 월례회 및 가을 나들이를 11월 10일 충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홍성의 용봉산에서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대전, 서울, 홍성, 서산 등지에서 70여명의 동기들이 참여해 늦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0월 내포 신청사로 이전한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백승엽 청장과 남궁영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에게 60회 동창회 이름으로 공로패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모처럼만의 나들이에 한껏 마음이 부푼 우리 동기들은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 방문 후 용봉사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 궁리향으로 이동하여 맛있는 회를 먹으며 동기들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60회가 하나임을 다시금 느끼게 한 즐거운 가을 나들이였다.

이수행 (60회)

자전거 동호회 회원모집

만병통치, 단점없는 스포츠
다같이 모여 라이딩 즐기시죠

“자전거는 심장·폐기능, 순환기 계통, 하체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국 출장 중에도 호텔에서 꼭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면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덤으로 인생·사업 전반에 대한 사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1시간 타면 360kcal 정도 열량 소모 효과가 있어 비만 관리엔 보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전거 예찬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30분~1시간 쯤 실내 자전거를 타고 어떤 사람은 20년 이상 최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1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조깅, 마라톤 등과 달리 관절에

기가 힘든데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칼로리 소모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체관절 손상 위험 없이 살을 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타면 혈당 조절을 쉽게 해줘 고혈압 환자 평균 혈압을 10mmHg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심장과 온몸의 혈액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영양물질과 산소 공급이 좋아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제거가 빨라지며 이는 순환기 계통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 운동은 몸에 이로운 HDL콜레스테롤을 늘리고 해로운 LDL콜레스테롤을 줄여 면역력을 높이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단점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자전거를 타는 동문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총동창회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동문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가끔 동문들끼리 라이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동문들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연락처

총동창회 사무국 ☎042-257-0005

<지회소식>

<홍성지회>

◆ 2013년도 재홍성 대전고 동문회 송년 모임

- 일시 : 2013년 12월 10(화) 18:30
- 장소 : 다다힛집

◆ 전출

- 성광식(60회) 남양주사업단장 전출 8.1
- ◆ 전임
- 이종국(55회) KBS 대전충국 홍성센터장
- 최명로(61회) 농협중앙회 충남교육청 지점장
- 송석두(58회)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남궁영(60회)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 백승엽(60회) 충남지방경찰청장

<기별소식>

<35회>

- ◆ 행사
- 35회 각회 회장단 간담회
- 일시 : 2013년 11월 5(화)
- 하반기 임원회의
- 일시 : 2013년 11월 14(목)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중식 : 대전 중구 계룡로 825
- 회영빌딩 9층 010-5403-3448
- 조한기 : 010-3427-6449
- 이은창 : 010-7788-0970

<36회>

- ◆ 송년회 및 총회
- 일시 : 2013년 12월 19(일) 12:00
- 장소 : 월산본가대흥동 천주교회 방면 ☎256-4100
- ◆ 재경36회 송년회 및 총회
- 일시 : 2013년 12월 13(일)
- 장소 : 산들애(양재동)
- ◆ 도로명주소 표기 회원수첩 발간 안내
- 신주소 제출 및 확인 교정 요망
- 사진제출처 : 서승기(019-292-9895) 핸드폰 사진 가능

<38회>

- ◆ 2차 이사회
- 일시 : 2013년 10월 11(일)
- 장소 : 미가사랑
- 참석인원 : 이용만 회장 외 23명
- 내용 : 재경동창회 주최 등반대회 참석의 건, 38회 추계 등반대회의 건

- ◆ 38회 추계 등반대회 개최
- 일시 : 2013년 11월 7(일)
- 참석 : 이용만 회장 외 37명(부인 12명)
- 장소 : 문경새재 제1관문, 2관문 등반

- ◆ 애사
- 권호원 : 모친상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김남섭 : 대전 동구 신내로 1257번길40, 103-605(남월동, 석촌동A)
- 송재용 : 대전 동구 대전로 646, 106-1101(효동, 현대A)

<44회>

- ◆ 회원동정
- 오형근 : 오창에딘버러 컨트리클럽 개장 (구 오창테크노빌G.C.) 10.21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11 (☎043-210-1900)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남궁박 : 010-4422-1310
- 이태웅 : 010-2960-7599
- 김병기 : 대전 서구 가장로 107, 202-1806(가장동, 래미안A)

- 조환우 : 대전 서구 도솔로 319, 2F(괴정동) 조환우 세무회계사무소 (☎042-242-8805)
- 추덕수 : 대전 유성 은구비서로 30, (지족동), 010-8260-9336

- ◆ 경사
- 이성배 : 여훈 10.12
- 이종훈 : 자훈 10.13
- 김중후 : 자훈 10.13
- 강영인 : 여훈 11.2
- 남궁박 : 자훈 11.10

<45회>

- ◆ 2013년도 정기총회
- 일시 : 2013년 11월 15일
- 임원개선 : 회장 변무선, 감사 조규천
- 총무 김중순

- ◆ 경사
- 박일용 : 자훈 11.23
- 구본영 : 자훈 12.14

<46회>

- ◆ 재경46회산악회(회장 이길영)
- 가을 단풍여행
- 일시 : 2013년 11월 16(일) 11:00
- 장소 : 지리산 백양사
- 참가인원 : 34명(부부 9쌍)
- ◆ 수상
- 유승현(충남대 응용생물학과 교수)
- 자생균류자원의 종다양성 확보와 자연 보호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10.10
- ◆ 애경사
- 김동원(SK) : 부친상 9.22
- 이진환 : 여훈 10.12
- 이성구 : 장모상 10.15
- 손원중 : 자훈 11.23

<47회>

- ◆ 11월 정기회의 겸 송년회
- 일시 : 2013년 11월 18(일) 18:30
- 장소 : 대흥동 만나
- 참석인원 : 40여명
- ◆ 애경사
- 유병인 : 장모상 10.8
- 유병인 : 여훈 10.19
- 박윤찬 : 여훈10.20
- 임종석 : 장모상 10.23
- 김연각 : 자훈 10.26
- 정현중 : 장인상 11.2
- 장현수 : 부친상 11.12
- 정희준 : 자훈 11.16

<48회>

- ◆ 48회 단합대회 및 추계등반 행사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 장소 :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원군)
- 참가인원 : 51명
- ◆ 48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일시 : 2013년 11월 4(일)
- 장소 : 통소매
- 참석인원 : 10명
- 안건 : 연말행사 개최에 대한 건 외 2

- ◆ 투병 동기 위로 방문
- 2013년 11월 8일 유원준 동기회장이 암 수술로 충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충근' 동기 방문하여 쾌유를 기원하고 위로금 100만원 전달

<49회>

- ◆ 행사
- 49회 산사랑회 용문산둘레길 산행 10.19
- 49회 바둑대회 : 사당바둑싸움 11.9
- 송능회 부부동반 송년회 11.16
- 대전지역 11월 정기모임 미가사랑 11.19

◆ 회원동정

- 송용호 : '도시·삶 연구원' 초청강연
「새로운 비전 행복한 삶」 11.15

◆ 애경사

- 정태희 : 장모상 10.1
- 광상호 : 자훈 10.12
- 장인옥 : 여훈 11.2
- 심규선 : 장모상 11.2
- 권성원 : 자훈 11.9
- 유정호 : 자훈 11.16
- 백오현 : 여훈 11.23

<51회>

◆ 미담

- 51회 중부지회 오병하 동기
매년 6회 만나는 모임에 1993년부터
20년 동안 개근하여 모범을 보임

◆ 행사

- 화갑기념 대만여행
2013년 9월 27일(금) ~ 29일(일)
- 화갑기념 계룡산 산행
2013년 11월 9일(토)

◆ 애경사

- 고길수 : 장모상 9.27
- 장백기 : 부친상 10.10
- 권용대 : 여훈 10.12
- 최선주 : 여훈 10.12
- 홍순관 : 여훈 10.19
- 신경식 : 여훈 10.26
- 경창호 : 자훈 10.27
- 오범진 : 여훈 11.9
- 추원호 : 장모상 11.9
- 김갑중 : 자훈 11.30
- 사광용 : 자훈 12.1

<53회>

◆ 2013-1차 임시총회 개최

- 일시 : 2013년 11월 26일(화) 19:00
- 장소 : 수협 바다회관(둔산동)

◆ 권선택 前 국회의원 동정

-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유력한 권선택
전 의원이 '구석구석, 뚜벅뚜벅, 흠뻑
땀'을 슬로건으로 8월 7일 대청공원을
시작으로 나섰던 대전경제투어 '시민속
으로'(도보로 총연장 291km / 3개월간
26회)가 11월 2일 대전역을 종착역으로
막을 내림
- <경창> 출판기념회
2013년 11월 14일(목) 18:30 호텔ICC

◆ 인사

-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현 대법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초대의장에 피선
10.14
- 구자명 공주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공주대 기획처장 보직 10.24

◆ 애경사

- 임정식 : 자훈 10.3
- 박용배 : 부친상 10.11
- 나태순 : 여훈 10.12
- 강신영 : 자훈 10.12
- 송석정 : 자훈 10.17
- 이재윤 : 여훈 10.19
- 이준봉 : 장모상 10.19
- 이영국 : 여훈 10.20
- 연건희 : 장인상 10.29
- 박승하 : 장모상 10.31
- 오인진 : 부친상 11.6
- 김형우 : 모친상 11.6
- 성은모 : 부친상 11.11
- 이용욱 : 자훈 11.16
- 서정천 : 여훈 11.17

<54회>

◆ 애경사

- 강태영 : 부인상 9.19
- 이금순 : 부친상 9.22
- 배명렬 : 여훈 10.9
- 김병수 : 여훈 10.9
- 이기덕 : 부친상 10.13
- 노재영 : 모친상 10.14

- 진승식 : 자훈 10.19
- 김병홍 : 자훈 10.19
- 정운채 : 본인상 11.10
- 강태영 : 여훈 11.30
- 이규상 : 여훈 11.30

<55회>

◆ 55산우회 10월 산행

- 일시 : 2013년 10월 13일 07:00 ~ 19:00
- 장소 : 영덕블루로드 B코스(푸른 대게의 길)
- 참여인원 : 20명

◆ 55산우회 11월 산행

- 일시 : 2013년 11월 10일 09:00 ~ 14:30
- 장소 : 대청호 오백리길 6구간 국사봉길
- 참여인원 : 16명



◆ 회원동정

- 박두순(순천향대 교수)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수석부회장 선임

<56회>

◆ 모임

- 대전 56당구회
- 발대식 및 모임 : 유천동 <큐 당구장>
8.24 / 10.10 / 11.2
- 56산악회
- 대전 9월 정가산행 : 대둔산 9.1
- 재경 10월 정가산행 : 천마산 10.6
- 대전 11월 정가산행 : 대둔산 수락골
11.3
- 재경 서부모임 : 토리촌 9.12 / 10.10
- 재경 삼목포럼 : 충무로 <수북정> 9.26
- 대전 임원회의 : 대충동 <황가네 굴밥식당>
11.8
- 재경 삼성회 : 삼성동 <보쌈마을> 11.8

◆ 회원동정

- 이종권(2반) 지티건설(주) 베트남 호치민
진출 10.15

◆ 애경사

- 박찬규 : 부친상 9.13
- 박태동 : 모친상 9.18
- 노재욱 : 모친상 10.14
- 박찬인 : 장인상 10.18
- 손 윤 : 자훈 10.19
- 김중혁 : 부인상 10.22
- 최예영 : 장인상 10.24
- 유상수 : 장인상 10.26
- 황중식 : 장인상 11.5
- 한평림 : 부친상 11.5
- 박종범 : 자훈 11.9
- 양웅택 : 자훈 11.10
- 배기호 : 여훈 11.16

<58회>

◆ 58회 모임안내

- 58동창회회장 금기반) 매월 셋째주 목요일
- 58장학회회장 문성식) 매월 셋째주 목요일
- 유능회회장 김동현) 매월 셋째주 월요일
- 일목회회장 김한국) 매월 첫주 목요일
- 테헤란모임(회장 도정화) 매월 둘째주 화요일
- 재경등산회(회장 박종호) 매월 첫주 토요일
- 58기우회회장 유준봉) 매월 첫주 토요일
- 58타임월드모임(회장 이광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점심
- 대덕골(회장 배재성) 매월 첫주 화요일 점심

◆ 애경사

- 김한국 : 모친상 9.22
- 오건세 : 자훈 9.28
- 홍기학 : 모친상 9.27
- 이환승 : 장인상 9.30
- 안기현 : 장모상 10.2
- 정용석 : 장모상 10.8
- 박준석 : 여훈 10.19
- 이동혁 : 장모상 11.3
- 강동훈 : 모친상 11.7
- 신광석 : 부친상 1.10
- 주혁중 : 모친상 11.10
- 이종호 : 자훈 11.17
- ◆ 축하, 승진, 개업, 근황
- 강훈구 : 타올의 명가 다솜타운(옥천공장)
대표 010-4871-0788

◆ 2013년 59회 연회비 납부안내

- 모든 59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서울·경기 거주자 외
- * 연회비 : 80,000원
- * 농협 453039-52-157331 김항석
- 서울·경기 거주자
- * 연회비 : 100,000원
- * 신한 110-258-880304 김신철
- ◆ 59회 네이버 카페 가입안내
- http://cafe.naver.com/daego59
- 푸짐한 경품이 걸려 있는 300번째 가입
4만 번째 방문, 800번째 글올리기 이벤
트가 진행 중입니다. 59회 동기들은 모
두 가입해 주세요

<65회>

◆ 65회 합동 아우회 개최

- 일시 : 2013년 11월 17일(일)
- 장소 : 영흥화력발전소(3반 양은모 근무)

◆ 애사

- 권양수 : 모친상 10.28

<66회>

◆ 66기 가족동반 단합대회

- 일시 : 2013년 9월 1일
- 장소 : 서대산 일원

◆ 11반·12반 첫 모임

- 일시 : 2013년 10월 26일(토)
- 장소 : 유성 계룡스파텔

◆ 국회의원 김용태

<김용태리포트3 : 팩트> 출판기념회

- 일시 : 2013년 11월 13일(수)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동기 모임 공지

매월 3일 동기모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애사

- 박선규 : 본인상 9.8
- 양승진 : 장모상 10.8
- 김양완 : 장인상 10.11
- 허경범 : 부친상 10.13
- 이승호 : 장인상 10.18
- 이용욱 : 부친상 10.26

<68회>

◆ 정기모임

- 8월정기모임 : 둔산동 블루오션뷔페 8.8
- 9월정기모임 : 인동 어진숯불갈비 9.12
- 10월정기모임 : 신탄진 지리산 흑돼지
10.10
- 11월정기모임 : 태평동 풍성돌구이 11.14

◆ 가족모임

- 일시 : 2013년 8월 24일
- 장소 : 신탄진 로하스수영장

◆ 회원동정

- 박지형(주메디스 대표) : 사육 이전 및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대전 유성 관평동 699-1

<59회>

◆ 2013년 10월 가족 아우회 (대전)

- 일시 : 2013년 10월 6일(일)
- 장소 : 새남당 방조제 및 채석강
- 참가인원 : 가족 포함 26명



◆ 회원동정

- 양병국 : 질병관리본부장 취임
- 진완수(구명 진영민) : 강남시스템 창사
대전 서구 신갈마로 110-1
☎042-526-2929

◆ 애경사

- 남승원 : 모친상 9.22
- 사진국 : 본인 결혼 11.23

개교 96주년 대전교
다시 뭉치는 대능인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누는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



대전고등학교 제60회 동창회

♣ 회 장 김용성

♣ 부 회 장 김선도, 명광직, 오기영, 최충열, 한찬수

♣ 장학회장 김광식

♣ 자문위원장 박동식

♣ 산악회장 최충열

♣ 골프 회장 차성오

♣ 합창단장 오기영

♣ 감 사 김광식

♣ 기획총무 박수용

♣ 재정총무 김 암

♣ 재경회장 권순목

♣ 재경감사 김종철

♣ 재경총무 천민호

※이 광고는 60회 동문들의 연회비와 일부 동문 기업의 협찬으로 게재되었습니다.

德隆建設(株)



代表理事 權 純 睦 (60회)

서울시 성동구 해당동 319-36 무학빌딩 407호
TEL : 02-2295-6381~3 FAX : 02-2295-6380
Mobile : 010-4526-8594



주식회사 알루피아

ALUPIA CORPORATION

대표이사 김 태 일 (60회)

Mobile : 010-3869-42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911호
TEL : 02-597-6718 / FAX : 02-597-6719
E-mail : alupia1@daum.net / kgockim@daum.net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 서 울



대표변호사

김 종 철 (60회)

안 혁 환 (60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13 영일빌딩 5층 (교대역 1번출구)
TEL : 02-581-0034(代) FAX : 02-581-0087
공증실 : 02-581-0095
E-mail : lawkj@hanmail.net
hwahr21@hotmail.com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9회 동창회

♣회 장 남 상 인

♣총 무 김 석 주
연 규 용

♣재경회장 김 신 철

♣재경총무 이 영 권

♣재경부회장 정선영, 박병환, 김상수, 김영수
이항수, 김호태, 홍진학, 천의영
권채순, 김현열, 최시영, 박관병



SOK 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

1년에 하루 속편한내과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머지 364일은 편안히 지내세요.

내시경센터

종합건강검진

갑상선클리닉

유방클리닉

[진료시간] · 평일 : 오전8시 ~ 오후6시 · 토요일 : 오전8시 ~ 오후2시

예약문의 **042) 526-3010**

원 장 진 영 주 (59회)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5-9
KMT빌딩 4 ~ 6층(롯데백화점 옆)



현대메디칼의원



원 장 서 용 선 (59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657-5



예 약 문 의
041) 579-7575

▶ 통증, 피부미용 전문
▶ 수술없이 예쁜 여자 / 강한 남자

원 장 이 력 사 항

· 외과전문의 · 의학박사 · 명예사회학박사 · 명예철학박사
· 시인 · 수필가 · 사진작가
·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상임이사
· 2018 동계스포츠 유치운동본부 이사

법무법인 중부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중부권 최고의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 축적된 분쟁해결의 노하우
· 성공적인 사례와 끊임없는 연구
· 중소기업법률지원센터 운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 7길 7 302호 (신부동, 중앙빌딩)

대표 전화 **041) 582-7200**

대표변호사 이문우 (59회)

대표변호사 김동준 (62회)

변 호 사 황영명

변 호 사 이상희

변 호 사 이종민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58회 동창회

♣회장 금기반 ♣재무부회장 이동혁 ♣재경회장 노명섭 ♣재무부회장 민경재

♣자문위원 이광우, 박대영, 오한진, 문성식, 이성균, 오충환, 송인암
김충수, 김준우, 한청수, 김원진, 변재훈, 김철수, 성송기

♣감사 이찬용, 조성완(재경)

♣집행부회장 하상수, 김춘수(1반), 명완재, 정현(2반), 김동현, 홍석관(3반), 김철한, 김영중(4반)
장진엽, 이광수(5반), 유정수, 김창식(6반), 전태곤, 공만규(7반), 오충환, 곽노찬(8반)
윤석총(9반), 정규남, 이상윤(10반), 오병석, 김환국(11반), 유준봉, 윤재경(12반)

♣직능부회장 문성식(58장학회 회장), 유준봉(58기우회 회장), 김동현(유능회 회장), 이광우(58타임월드모임 회장)
김원진(58산악회 회장), 김환국(일목회 회장), 도정화(테헤란모임 회장), 박종호(등산모임 회장)
안홍찬(광화문모임 회장), 김경수(58골프회 회장)

- 강석만 대동 강석만치과 원장
- 강남욱 (주)두성기술 대표이사
- 송인암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 안기현 충주 안기현이비인후과 원장
- 성진형 용문동 가톨릭병원 원장
- 금기반 대전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변재훈 갤러리아 타임월드 타임문고(주)/
홈플러스 둔산점 세이박스(주) 대표이사
- 문성식 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변호사
- 오한진 관동의과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
- 여성우 김천제일병원 신경외과 과장
- 오충환 (주)코스모 E&F 대표이사
- 김상국 김상국정신과 원장

- 김충수 중리동 미래정신과 원장
- 원시영 도마2동 원시영이비인후과 원장
- 박용진 시온클리닉 8층 박비뇨기과 원장
- 권선국 대사동 성모가정의원 원장
- 도중철 도중철법률사무소 변호사
- 우강수 삼익부동산 대표
- 신광재 안산 강서고등학교 교사
- 이만중 동림건설(주) 이사
- 김홍환 현대자동차(주) 공덕대리점 부장
- 차영조 선사신경외과 원장
- 이광우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광우치과 원장
- 하상수 판암동 경로치과 원장

대표이사 김 경 수 (58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9-4 젤존타워 II 8층 TEL: 031-718-3666 FAX: 031-718-5857

Pacom

고객님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